

3월 13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3월 13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사흘째 랠리 [DOW: 7,170.06pt (+ 3.46%)	12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이 사흘째 랠리를 펼치며, 주요 지수는 일제히 4%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흘간 지속된 랠리로 다우 지수는 620포인트 이상 올라 7,100선을 탈환했고 S&P500 지수의 사흘간 상승폭은 지난 11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음. 이들 연속 상승한데 따른 부담감 속에서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의 제너럴 일렉트릭(GE)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 장초반 하락세로 떨어지기도 했던 주요 지수는 GE의 등급 강등폭이 전망보다 크지 않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음. 이후 제너럴 모터스(GM)가 정부의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데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월과 2월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내 상승폭을 늘려 일일 최고점 수준에서 마쳤음. 2월 소매판매가 선전, 경기후퇴(recession)에 따른 가파른 소비위축이 어느정도 진정됐다는 분석도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GM 급등.. "정부 지원 필요없다"	GM은 이날 지난달 말 정부에 요청했던 지원금 20억달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음. 레이 영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의 비용 절감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당초 요청했던 3월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부 테스트포스팀에 통보했다"고 말했음.
BoA 등 금융주-화이자 등 제약주도 `랠리`	씨티그룹과 JP모간체이스에 이어 이날 BoA의 켄 루이스 회장도 "1~2월 수익을 냈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랠리를 촉발했음.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시가평가제(Mark to market)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도 호재였음.
2월 소매판매 선전	미국의 소매판매는 월가 전망을 넘어섰음. 경기후퇴 국면이 지속되면서 가팔랐던 소비 위축세가 어느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상무부는 2월 소매판매(계절조정)가 전월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는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4%보다 적은 감소폭임. 7개월만에 첫 증가세를 나타냈던 1월 소매판매 증가폭도 당초 발표됐던 1%에서 1.8%로 상향 수정되었음.
유가 급등 [WTI: \$47.03 (+ \$4.7)	차킵 켈럴 알제리 에너지 장관은 전날 "OPEC이 이번 정례회의에서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음. 그러나 몇몇 회원국들이 추가 감산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감산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임.

제목	주요 내용
유럽 증시 상승..제약주 견인	스위스의 금리인하와 제약업체 로슈 홀딩스의 인수합병(M&A) 소식이 투자심리를 지지. 제약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이날 경기후퇴(recesseion)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25%로 0.25%포인트 인하.
오바마-中외교부장, `경제협력·북한핵` 논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양국이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 두 사람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 자리에서 "내달 G20 정상회담이 글로벌 경제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나은 협력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언급.
日 GDP, 2분기 연속 두자릿수 감소 전망	전날(12일) 발표된 일본의 지난해 4분기 GDP수정치는 12.1% 감소세를 보여 기존 12.7%보다는 완화됐지만,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음. 일본은 올해 1분기인 1~3월에도 4분기와 비슷한 속도의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두자릿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분기대비로는 4분기 연속 감소.
피치 "내년말까지 국내 은행 자본손실 42조"	피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위한 경제 변수로 올해 경제성장률(GDP)를 -2.5%(내년까지 약세 기조)로 가정했으며, 2년6개월간 주가가 3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음. 또 2010년말 회사채 부도율은 5%, 기타 투자(파생상품) 손실율은 2%로 가정. 은행이 보유한 업종별 자산 손실율은 건설업 12%, 제조업 10%, 소매대출업 8%, 주택담보대출 1% 등이었음.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 4년 추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 입법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3일 입법예고를 하고 4월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음. 노동부는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감면, 차별시정 활성화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도 내놓기로 했음.
환율 5일만에 상승..LGD 지분 처분 영향"	달러-원 환율이 5일만에 반등하면서 다시 1500원대로 바짝 다가섰다. 12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25.5원 오른 1496.5원에 마감. 이날 외환시장에서는 출발부터 강세였음. 밤사이 역외 NDF 환율이 1,482원에 거래되면서 전날 현물환 증가보다 11.6원 올랐던 게 상승출발을 이끌었음. 글로벌 달러는 전체적으로 약세였으나 필립스사의 LG디스플레이 지분 처분에 따른 달러수요와 단기 급락에 따른 경계감 등으로 NDF환율은 상승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